

‘베를린 천사의 시’ 브루노 간츠를 다시 만나다



‘베를린 천사의 시’

11월1일~9일 광주극장서 추모 특별전
시대극·멜로·호러 등 다양한 장르 연기
스위스 배우... ‘뿡과 툴립’ 등 14편 상영

‘베를린 천사의 시’, ‘영원과 하루’ 등으로 알려진 스위스 영화배우 브루노 간츠(1941~2019)를 추모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주한스위스대사관과 광주시네마테크는 11월1일부터 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브루노 간츠 추모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브루노 간츠는 스위스 출신이지만 독일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미국 등의 영화에도 출연해 왔다.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연극 무대에서 경력을 시작한 브루노 간츠는 에릭 로메르의 ‘0 후작부인(1976)’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미국인 친구(1977)’, ‘베를린 천사의 시(1987)’, ‘뿡과 툴립(2000)’, ‘몰락(2004)’ 등 80편이 넘는 작품에서 다양

한 배역을 소화하며 잊을 수 없는 영화적 순간들을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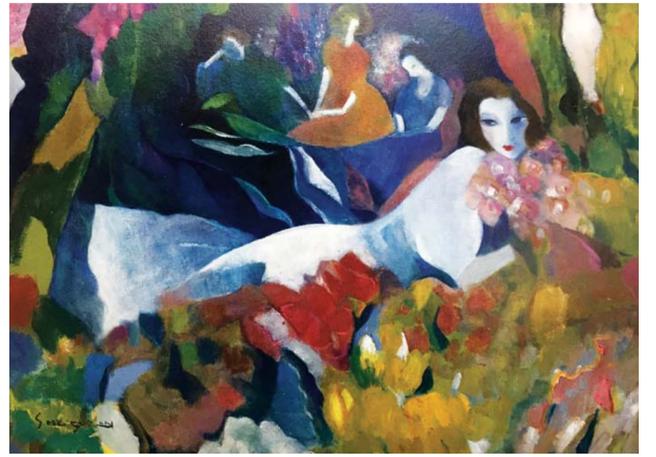
이번 특별전에서 상영하는 14편의 작품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스위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베르너 헤어조크, 빔 벤더스, 에릭 로메르, 테오 앙 겔로폴로스 등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들이다.

브루노 간츠는 시대극, 멜로드라마, 호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였지만 그가 특히 빛났던 순간은 삶의 지혜와 성찰을 녹여낸 연기를 펼칠 때였다. 강함과 약함, 회의와 의지, 진지함과 친근함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그의 연기는 어느새 모두에게 소중한 형상으로 자리잡았다.

11월 2일에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스위스 대사가 광주를 찾는다.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는 이날 오후 7시 20분 ‘포르투나(2018)’ 상영 전 무대인사를 진행한다.

상영작 소개 및 상영 시간표는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름다운 외출’

꽃과 여인 ‘아름다운 외출’

강숙자 초대전, 11월1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강숙자 작가 초대전이 오는 11월1일까지 전남대병원 1동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외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꽃과 여인’을 소재로 한 몽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속 여성들은 서구적 인상을 풍기는 모습이다. 때론 도도하고, 때론 새초롬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여인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꽃은 여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또 다른 장치일지도 모른다.

전시에서는 꽃 속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풍경,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 등 다양한 자태로 등장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다. 작

품 속에서 홀로, 때론 무리로 어울려 행복 한 시간을 보내는 여인들의 모습은 꿈속을 걷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와 어울려 색다른 화면을 연출한다.

그녀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는 사랑이다. 고양이, 새, 식탁, 꽃 등 주변의 사물들을 화면으로 끌어들이며 편안함을 전달한다. 또 파스텔화 느낌이 나는 꽃그림에서 따뜻한 정서가 느껴진다.

조선훈 미술학과를 졸업한 강 작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여류화가회 회장과 전남도·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예술문화상, 원진미술대상(분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전남여성작가회 고문,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호문학상 본상에 김종 시인, 나주문학상에 박이수 작가

제3회 백호입제문학상 본상에 김종 시인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독도우체통’이며 상금 2000만원. 아울러 나주문학상에는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박이수 작가의 ‘혼자라면’이 뽑혔다. 상금은 500만원.

나주시는 백호입제문학상 본상과 나주문학상에 각각 김종 시인의 ‘독도우체통’, 박이수 작가의 ‘혼자라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호입제문학상’은 나주 출신 조선 중기 문인이자 사상가인 백호 임제(1549~1587)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모전으로 격년제로 시행한다.

이번 본상 수상작 ‘독도우체통’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붓으로 직접 필사에 문집을 간행했던 것처럼 붓으로 직접 72편의 시를 쓰고 회화를 덧붙여 만든 육필 시화집이다. 표제적인 ‘독도우체통’은 우체통을 통해 독도에 대한 자긍심과 자주·애국정신을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심사 관계자는 “독도우체통은 사·서·화(詩·書·畫) 삼위일체의 육필시집으로 민족사의 한(恨)과 역사의식, 시대정신을 표출하면서 백호 입제의 문학정신을 잇고 다양한 형식의 시 작품을 통해 한국 시의 지평을 넓혔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 시인은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장미원’, ‘밀밭’, ‘배중손 생각’, ‘그대에게 가는 연습’ 등을 발간했다.

나주문학상 수상자인 박이수 작가의 ‘혼자라면’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주변부에 머무르는 여성 노인을 개성 있게 형상화해 들끓는 내면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나주 출신 박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에에서 소설 ‘컨테이너’로 등단했으며 저서로는 ‘부표의 전



김종 시인



박이수 작가

설’이 있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14일 오후 2시 백호문학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김현문학축전’ 31일 목포문학관

올해로 타계 30주기를 맞는 문학평론가 김현을 기리는 제14회 김현문학축전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목포문학관에서 펼쳐진다.

김현문학축전추진위(공동대표 정과리·채희운)가 주최하고 목포작가회의(지부장 김희숙)에서 주관하는 이번 문학축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평론가 김현(1942~1990)은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하고,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다. 평론의 수준을 높인 것은 물론 불문학자로서도 큰 족적을 남긴 한국 문학사의 별이었다.

이번 문학축전에서는 추모식과 함께 문학특강, 심포지엄, 창작시노래콘서트, 김현문학방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5·18광주민중항쟁과 김현문학의 만남을 특집으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이광호 문학평론가사회로 우찬제, 한래희, 김형중 문학평론가 등이 발제에 나선다. 또한 김현을 추모하는 창작시를 곡으로 만든 김현추모시노래콘서트가 진행된다. 제5회 김현문학패를 수상한 김경후 시인을 비롯 임동학, 박상률, 성운석, 정운천, 주영국, 박관서 시인 등이 참가한다.

이외에 영상시화전과 김현문학아카이브, 온라인골든벨도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트라빈스키 ‘병사 이야기’ 광주서 초연

3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클래식, 연극, 발레가 어우러진다.’ 스트라빈스키의 총체예술극 ‘병사 이야기’가 광주에서 초연된다.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지역 예술인들이 뭉친 K아트가 무대에 올리는 ‘병사 이야기’는 음악과 함께 내레이터의 낭독, 배우들의 대사, 춤이 어우러진 독특한 형식과 편성의 음악극이다.

귀환 길에 잠시 쉬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주인공 병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악마의 말에 넘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바이올린을 악마의 책과 맞바꾸어 버린다. 악마의 집으로 가 사흘 동안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후하게 대접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3년의 세월이 지나 있음을 발견한다.

대본은 스위스 시인 라뤼가 러시아 민화집에서 차용해 썼으며 한글 대본은 예술감독과 지휘를 맡은 박승유와 연출자 김민주가 공동 번역했다.

박승원(바이올린), 권새롬(콘트라베이스), 조우리(클라리넷), 조아라(파곳), 김판주(트럼펫), 석수정(트럼본), 한예주(피커션)가 연주에 참여하며 이소하·서평화·최민혁이 내레이션과 연기를 맡는다.

발레리나 조성미, 허요안, 김진경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5·18 무용음악극 ‘무등의 사계’

5·18 40주년 무용 음악극 ‘무등의 사계’

31일, 전일빌딩245 전일마루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무용 음악극 ‘무등의 사계(四季)’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전일마루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20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댄스컴퍼니 Sun&Friends(대표 선유라)가 주최한다.

광주정신과 더불어 광주를 품고있는 무등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창작공연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 ‘봄-예향(藝鄕)’에서는 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꿈꾸는 광주를 표현한다. 이어 2장 ‘여름-의향(義鄕)’은 혼란

속, 옳은 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정신을 담았으며, 3장 ‘가을-미향(味鄕)’은 그림움과 애뜻함이 묻어나는 정(情)을 그리며, 마지막 4장 ‘겨울-재향(財鄕)’에서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무등산처럼, 모든 이에게 평등한 재향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안무는 선유라가 맡았으며, 김현근·홍동리·곽예슬·최소영·차민지·염희아·박혜진·박은서 등이 무대에 오른다. 피아니스트 이승규와 첼리스트 박효은도 참여한다.

한편, 댄스컴퍼니 Sun&Friends는 2019년 창단, 청년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